

한양도성 순성길(탐방로) 관리 지침



문 화 본 부

(한양도성도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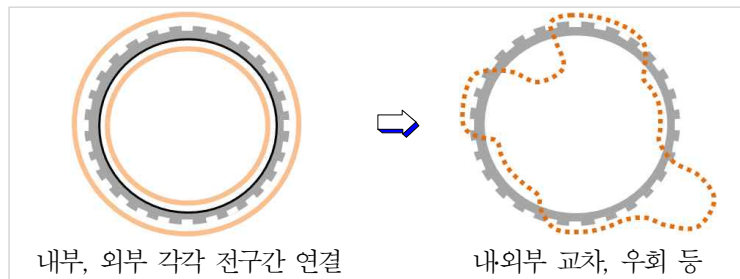
한양도성 순성길(탐방로) 관리 지침

1 기본원칙

- ▶ 도성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진정성을 회복하는 범위 내에서 도성의 아름다움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성·정비
- ▶ 진정성있는 도성보존을 전제로 기개설되어 있는 탐방로의 효과적인 관리

□ 신규 탐방로 개설

- 기 조성되어 있는 내외부 도로(탐방로, 산책로 등)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연결한다.



- 불가피하게 개설하는 경우에는 도성의 보호를 최우선하여 경로의 선정, 재료의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.

□ 기존 탐방로 정비

- 성벽 보존에 위해 우려가 있는 기존 탐방로는 도성의 보호(성벽영역, 순심로)와 도성 경관(조망, 부속시설 등)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정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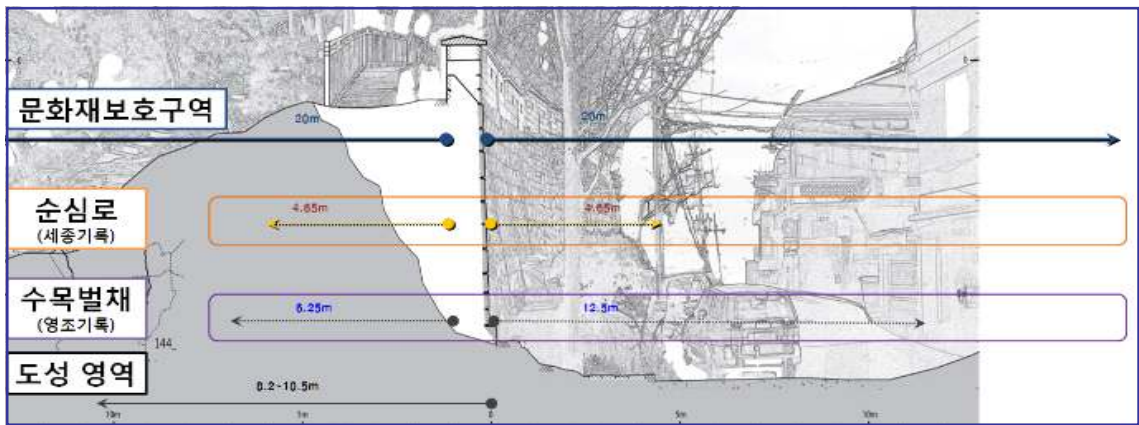
2 가이드라인 기본방향

01. 도성에서 일정거리 이격 등 성곽 및 성곽 기반시설 보호방안을 마련한다.
02. 도성과 자연 환경을 훼손하는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 한다.
03. 지속 가능한 도성의 보존·관리를 위하여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한다.
04. 도성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경로를 계획한다.
05. 각종 부속시설은 도성과 조화되도록 통합하여 디자인한다.
06. 불완전한 복원 및 훼손 시설을 정비한다.
07. 탐방이용자 및 인근주민을 배려하여 계획한다.

3 세부 가이드라인

01. 성곽 및 성곽 기반시설 보호방안

- 성벽으로부터 일정거리 이격 등 성곽 및 성곽 기반시설 보호방안을 마련한다.
*이하 '성곽 및 성곽 기반시설'은 성곽 영역이라 표기
- 탐방경로가 불가피하게 성곽영역에 포함되는 경우 순심로 등 유구 발굴 및 보호 대책을 강구한다.
- 경사지 등에 시설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, 원상태 복원이 가능하도록 시공한다.
- 성곽 영역 내의 시설물, 건물 및 식생은 단계적으로 이전 및 제거를 고려한다.
- 성곽 인접 화단, 가로등, 전신주, 군부대 초소, 체육시설 건물 등



02. 인위적인 요소 최소화

- 탐방시설은 인위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조성한다.
- 목재데크 등 인공시설 설치를 지양한다.
- 잔디 등 인위적인 조경보다는 자생수종을 식재한다.
- 옹벽, 석축 등 성벽에 인접한 시설물은 녹화, 사면정리 등 정비를 고려한다.



03. 친환경적인 재료 사용

- 기존 벌채목을 바다, 난간 등에 재활용한다.
- 자연흙 사용시 표층이 유실되지 않는 재료, 공법을 적용한다.
 - 표층 하부에 자연석을 매립하고 상부에 복토하는 방안(관측부분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) 등
- 경사지의 경우 돌이나 목재를 활용, 부분 매립을 고려한다.
 - 토양 유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사지에서는 일정간격으로 흙 흘러내임 방지목 등의 설치를 고려



04. 도성의 경관 조망

- 도성 내, 외부 경로를 잘 활용하여 성곽과 도심지의 다양한 모습을 효과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경로를 선정한다.
- 탐방로에서 도성 경관이 잘 조망될 수 있도록 성곽과 탐방로 사이의 지장물은 선별적으로 정비한다.
- 탐방로에서 도심의 경관 조망(주요 조망축)을 저해하는 지장물은 선별적으로 정비한다.

05. 각종 부속시설 통합 디자인

- 난간, 조명, 안내판 등 부속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고, 최소화한다.
- 각종 시설물은 개별 형태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통합하여 디자인한다.
- 색상, 재질, 형태 등 도성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한다.

06. 불완전안 복원 및 훼손구간 정비

- PVC파이프, 시멘트 노출부는 성벽과 어울리도록 정비한다.
- 성벽에 노출된 전선, 배관, 통신선 등은 지중화를 고려한다.
- 성벽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수목(성벽에 뿌리내린 수목, 성벽 인접 뿌리 부피생장으로 성벽에 영향을 주는 수목)은 연차적으로 제거한다.



07. 탐방이용자 및 인근 주민 배려

- 급경사지, 추락위험 구간 등에는 탐방객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한다.
 - 미끄럼 방지 포장, 난간, 위험안내판 등 안전 시설 설치 검토
- 탐방으로 인한 소음 등 인접 마을의 사생활이 침해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.
 - 우회 경로선정, 차폐 수목 식재, 침묵안내판 설치 등